



2019 기해년 국리민복으로 힘찬 출발!

현충원 참배 및 2019년 시무식



◇박종환 총재 등 본부 임·직원과 한전산업개발 간부들은 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2019년을 맞아 국리민복을 바탕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에 도움주는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의 힘찬 전진이 시작됐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1월 3일 박종환 총재를 비롯해 본부 임·직원과 한전산업개발 간부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행사는 현충탑 헌화와 분향, 묵념에 이어 역대 대통령과 경찰 묘역 참배 등이 있었다.

박종환 총재는 참배 후 방명록에 “국리민복, 화합과

통합, 변화와 혁신, 정치적 중립, 가치관 정립, 남북(북미)관계 개선 지지선언,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은 2018년을 빛낸 우리의 자취이며 2019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평화정착을 위해 350만 회원과 함께 힘쓰겠다”고 남겼다.

이에 앞서 1월 2일에는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본부 임·직원과 서울시지부 간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2019년 업무를 시작했다. 박종환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국리민복의 가치를 우리사회 공동체에 확산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반도 숲 가꾸기’ 중앙추진단 현판식

박종환 총재, 김재현 산림청장 등

자총은 1월 1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박종환 총재를 비롯해 김재현 산림청장, 서양호 중구청장 등 내빈과 17개 시·도지부 사무처장단, 본부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숲 가꾸기’ 중앙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경과보고, 내빈소개, 기념사, 축사, 현판 제막,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자총은 앞으로 ‘한반도 숲 가꾸기’ 중앙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지부별로 현판식과 시·도추진단 출범을 갖는다.

한편 ‘한반도 숲 가꾸기’ 중앙추진단은 ▲남북 교류 및 환경문제 관련 포럼 ▲모바일 홍보활동 ▲홍보대사 및 자문위원 위촉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박종환 총재,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한반도 숲 가꾸기’ 중앙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

